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와 영어 성취도의 구조 관련성 연구*

김다미**
중앙대학교
김태영
중앙대학교

Kim, Damee & Kim, Tae-Young.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resilienc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English class attitude, and English learning achieve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19(1), 120-13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English-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s in English class on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high EFL school studen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 total of 472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result of SEM indicated that 1) resilience exerted a direct impact on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2) motivat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attitudes and achievement; and 3) attitudes showed a direct effect on achievement. Through th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resilience has a positive role in overall English learning, which implied that resilience helps students cope with academic difficulties and improves their motivation and/or interest in English. This could lead to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English class, resulting in students attaining higher English proficiency.

[resilience/English learning motivation/English class attitude/
회복탄력성/영어 학습 동기/영어 수업 태도]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 김다미, 교신저자 : 김태영

Received 15 December 2017
Revised 25 January 2018
Accepted 12 February 2018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다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damee7@gmail.com

김태영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tykim@cau.ac.kr

I. 서론

영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공용어(international language)인 만큼 우리나라 교육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강조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심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영어 교과목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대학 입학에 결정하는 입시의 주요과목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업을 할 때에도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일정수준 이상의 TOEIC, TOEIC Speaking, OPIc 등의 공인 영어 성적을 지원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영어는 언어적 수단이 아닌 한 개인의 능력과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T. Y. Kim & H. S. Lee, 2014).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큰 비중으로 인해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낮은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 수동적 학습 상황에 자주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영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대입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해야만 하는 비슷한 교육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 태도와 압박적인 영어 학습 환경을 적응해나가는 방법은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다 학업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어떤 학생은 자신만의 해결방법을 찾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반면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 내지 못하고 학습을 포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학생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몇몇 학자들(Block & Block, 1980; Fraser, Richman, & Galinsky, 1999)은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들은 학생 스스로가 직면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긍정적인 발달로 이끄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맥락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적용하여, 반강제적으로 영어 학습을 강요하는 국내 영어교육의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들은 그들이 당면하는 학업적 문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으며 어떻게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하고 있는지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도전적이거나 위협이 되는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학생들이 학습 상황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한 극복과 적

응은 학교에 대한 인식, 수업 태도 등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적응 요인으로 포함된다(Birch & Ladd, 1997; J. H. Kim, 2011). 최근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는 회복탄력성과 학습 동기간의 유의한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강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학업적인 위기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와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였음을 나타냈다(Abolmaali & Mahamudi, 2013; T. Y. Kim & Y. K. Kim, 2016; Y. J. Lee, 2004; J. A. Park & E. K. Lee, 2011; Putwain, Nicholson, Connors, & Woods, 2013).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업 태도 및 학교생활 적응과 같은 각각의 변인들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영어 등의 특정 교과목 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업 태도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나 각 변인 간의 관계 연구는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EFL 학습 상황과 같이 특정 학습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업 태도 등의 변인들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구조 관련성을 고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 구인에 초점을 두어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영어 교육 현장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곤란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적응하고 극복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을 뜻한다. 주로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의 핵심 능력은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히 반응하여 역경을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발달에 이르는 것이다(E. S. Hong, 2006; J. H. Kim, 2011). 또한, Martin(2002)은 학업적인 회복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의 개념으로 학습자가 학업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힘으로 설명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과 학습 동기,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제시되었다(Abolmaali & Mahmudi, 2013; T. Y. Kim & Y. K. Kim, 2016; Y. J. Lee, 2004; J. A. Park & E. K. Lee, 2011; Putwain et al., 2013). 이처럼 일반적인 학습 상황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계성 연구는 많지만, 제2언어 학습과 관련한 회복탄력성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영어는 국제공용어로서의 언어적 역할보다는 입시의 필수과목이자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한국 학생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영어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낮아도 영어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는 반강제적인 상황에 처한다. 이처럼 영어 학습자들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과 같은 심리적 요인은 제2언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T. Y. Kim, 2012a; T. Y. Kim & Y. K. Kim, 2016).

2) 영어 학습 동기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같이 교육의 필요성으로 인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교육환경(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에서는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하여 Dörnyei(2005)가 제안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는 학습자가 원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과 제2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중점을 둔 이론으로 학습자가 생각하는 미래상이 구체적이고 생생할수록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영어 학습 동기의 요인으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the ideal L2 self), 필연적 제2언어 자아(the ought-to L2 self)를 제시하였다. 이상적 제2언어 자아는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제2언어를 학습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제2언어를 학습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제2언어를 공부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영어 학습을 하거나 부모님과 같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Dörnyei, 2005)을 적용하여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Dörnyei, Csizér와 Németh(2006), Taguchi, Magid와 Papi(2009)는 EFL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는 헝가리, 일본, 중국, 이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의 Gard-

ner(1985, 2001)가 제안한 사회교육모형보다 Dörnyei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가 EFL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에 더 적합하고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과 관련한 연구(T. Y. Kim, 2012a; Y. K. Kim & T. Y. Kim, 2012; Y. Lee & K. Ahn, 2013)에서도 앞서 언급한 외국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제2언어 동기적 자아체계의 이상적 및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Gardner의 사회교육모형보다 한국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데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는 국내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최근 연구 경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Dörnyei(2005)의 최근 이론인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3) 영어수업 태도

본 연구는 학교생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학교수업 적응의 의미로 영어수업 태도를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적응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 및 운동적인 발달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접하는 교육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알맞게 변화시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Y. R. Kim, 2000). Birch와 Ladd(1997)에 따르면 과거에는 학교생활 적응을 주로 학습 능력이나 성취도 등을 중심으로 개념화했지만 최근에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인식, 교실수업 태도나 수업 참여 등을 포함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정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업활동에 대한 참여와 태도, 성적, 교사 및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등이 전반적인 학교적응 요인으로 개념화된다(Berndt & Keefe, 1995; Roeser & Eccles, 1998). 이 같은 맥락으로 교실수업 태도 및 성취도를 주요 학교생활 적응 요인으로 구성하여 진행된 연구에서는 학교에 적응을 잘 할수록 학습 태도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 O. Choi, J. W. Moon, & J. S. Park, 2005; N. Shin & H. S. Doh, 2000).

학생들의 학교적응은 성인기의 사회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된다(S. H. Park, 2009). 이처럼 학교라는 넓은 범위의 개념으로 학교에서의 적응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실’이라는 좁은 범위의 개념으로 교실에서의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 몇 십년간 교실 학습 환경(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Gentry, Gable과 Rizza(2002)와 Padrón, Waxman과 Lee(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실 학습 환경이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성취도에 끼치는 유의한 영향을 제시했다. 또한, H. W. Lee(1996)는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성취도에 끼치는 유의한 영향을 밝혔으며, T. Y. Kim과 Y. J. Lee(2013)는 연구를 통해 교사 및 친구들, 교과서나 학습 방법 등의 교실 학습 환경이 학습 동기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 학습에 대한 심리적인 인식이나 수업 태도가 이들의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나 태도가 이들의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매일 수업을 받으며 생활하는 교실로 범위를 좁혀 교실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이들의 영어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 회복탄력성, 제2언어 학습 동기, 영어 성취도에 관한 연구

먼저 제2언어 학습 동기와 영어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Gardner(1985, 2001)의 사회교육 모형에 기반을 두어 제2언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예로, Masgoret와 Gardner(2003)는 학습 동기와 성취도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제시하며, 동기가 성취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국내의 연구결과(Y. L. Hong & T. Y. Kim, 2013; H. W. Lee, 1996; H. J. Wi & J. S. Joh, 2010)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으로 도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나타났다. M. Y. Kim(2016)의 연구에서는 내/외적 동기와 영어 능숙도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밖에 또 다른 국내 연구결과(S. B. Lim, 2001; E. K. Mang, 2001; E. J. Na, 2003)를 살펴보면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구적 동기가 확인되었으며, 도구적 동기가 유발된 학생들이 더 뛰어난 영어 성취도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Dörnyei(2005)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진행된 연구들(Dörnyei & Chan, 2013; Dörnyei et al., 2006; Kormos & Csizer, 2008; Papi, 2010; Taguchi et al., 2009)은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배우는 EFL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

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성취도에 미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활용한 연구(T. Y. Kim, 2012a, 2012b; T. Y. Kim & H. S. Lee, 2014; Y. K. Kim & T. Y. Kim, 2012; Y. Lee & K. Ahn, 2013)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번에는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현재 국내에는 몇몇의 연구자들(T. Y. Kim & Y. K. Kim, 2016; T. Y. Kim & H. S. Lee, 2014)에 의해 회복탄력성과 영어 학습 동기 및 성취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탄력성을 적용한 제2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전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동기와 성취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Abolmaali & Mahmudi, 2013; Cicchetti, 2013; Kwek, Bui, Rynn, & So, 2013; Putwain et al., 2013; Scales, Benson, Roehlkepartain, Sesma, & Dulmen, 2006)가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성공적인 학업 성취도를 위한 학습자 개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회복탄력성과 성취도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외, 수학이나 읽기와 같은 특정 교과목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과 성취도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제시한 연구 결과(Rivera & Waxman, 2011; Pádrón, Waxman & Y. Lee., 2014)도 있다. 또한, 제2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Kamil과 Fahim(2011), Nguyen, Stanley, Stanley와 Wang(2015)이 회복탄력성을 적용하여 제2언어의 능숙도 및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Kamil과 Fahim(2011)는 학습자들의 회복탄력성과 제2언어 능숙도에 관한 유의미한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회복탄력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탈동기화, 회복탄력성, 영어 성취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T. Y. Kim과 H. S. Lee(2014)의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의 하위 요인인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성취도에 가장 큰 설명력이 확인되었으나,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T. Y. Kim과 Y. K. Kim(2016)은 연구 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영어 성취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제시하였다.

2) 회복탄력성, 영어수업 태도,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성취도에 관한 연구

앞서 언급하였듯 본 연구의 영어수업 태도 변인은 학

교생활 적응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먼저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이 성인의 사회 적응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으로 강조되어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Y. J. Lee, 2004; H. J. Lim & J. C. Kim, 2014; J. A. Park & E. K. Lee, 2011; S. H. Park, 2009)를 많이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정적 상관관계와 회복탄력성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직접 효과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적응에서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과 주변 환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학생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H. J. Lim & J. C. Kim, 2014; S. H. Park, 2009)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Gentry 외 2인(2002)과 Padrón 외 2인(2014)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교실 학습 환경에 대한 태도를 꼽았다. 앞서 언급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외의 연구자들(Borman & Overman, 2004; Gentry, et al., 2002; Padrón, et al., 2014; Rivera & Waxman, 2011; Waxman, Huang, & Parón, 1997)은 교실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회복탄력성과 학업 성취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Borman과 Overman(2004), Rivera와 Waxman(2011)는 수학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수업 태도와 성취도 차이를 연구한 결과,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지닌 학생이 수업 활동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수학 성취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읽기수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Padrón et al., 2014)에서도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성취도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 및 태도,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 개념을 적용시킨 일반적인 교실 학습 환경과 수업 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2언어 학습 분야에서는 그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국내에서 진행된 제2언어 학습과 회복탄력성, 수업 태도, 성취도에 관한 몇몇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T. Y. Kim과 Y. J. Lee(2013)의 연구는 교사, 동료 학생들, 교과서나 학습 방법과 같은 학습자의 교실 수업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영어 학습 동기에 정적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 Y. Kim(2016)의 연구에서는 영어 학습 태도와 영어 능숙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수업 태도, 성취도 중 2개 혹은 3개의 변인만을 설정하여

이들의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를 확인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EFL 학습 분야에서는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몇몇의 연구들을 통해 EFL 학습 상황에서 보이는 학습자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학습 상황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학습 상황을 비롯하여 제2언어와 같은 특정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나 학습 동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지능이나 언어 적성 등의 요인들과 다르게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변 학습 환경 혹은 수업 환경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H. W. Lee, 1996). 이러한 이유로 국내 영어 학습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여 년간의 동일한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서로 상이한 영어 실력과 영어 성취도를 나타내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EFL 학습 상황과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영어 학습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학습 동기, 수업 및 학습 상황에 대한 적응 방식과 성취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른 학교 급에 비해 영어에 대한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를 자기보고 설문지법을 통해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변인들이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연구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최종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는 이들의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 2)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는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그림 1에 나타난 연구모형은 연구자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FL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상기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각 변인

들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각 변인들의 경로를 단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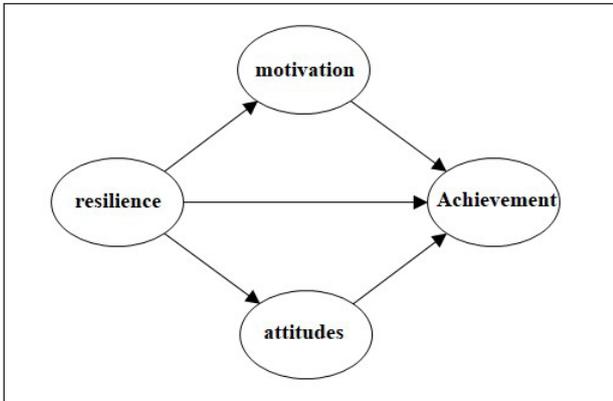


FIGURE 1 The Hypothesized Model of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세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472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학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로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학교는 경기 수원시의 공립 고등학교로 외국어 계열이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계열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학교는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공립 고등학교로 중학교 내신이 비교적 상위권인 학생들이 진학한다. 이 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알려져 있으며,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을 선정하는 이유는 다른 학교 급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Statistics Korea(2015)의 자료는 국내 청소년의 49.5%가 공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자살 충동을 느낀 7.9%의 학생들 중 39.3%가 그 원인으로 시험 성적 및 진학문제를 꼽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H. J. Im & H. C. Kim, 2010; C. H. Lee, J. G. Kim, & H. Lee, 2008)는 청소년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학업성적을 꼽았으며, 고등학생(70.1%)이 대학생(50.0%)보다 성적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 고등학생들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고, 학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참여자(472명) 중 남학생은 263명(55.7%), 여학생은 209명(44.3%)이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를 알아보기로 자기보고 설문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진행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문에 부적절한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 학생들에게 적합한 설문 내용으로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로 활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문항(4개 요인/20문항)은 W. Y. Shin, M. G. Kim과 J. H. Kim(2009), T. Y. Kim과 Y. K. Kim(2016), Kwek 외 3인(2013)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다. 영어 학습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4개 요인/28문항)은 T. Y. Kim(2012a), T. Y. Kim(2015), Y. K. Kim과 T. Y. Kim(2012), Papi(2010)의 연구를 참고했으며, 영어수업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2개 요인/7문항)은 Y. R. Kim(2000), Seoul Education Information Institute(2016), Choinh과 Fraser(2009)의 설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를 묻는 문항(1문항)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최근에 학교에서 치른 영어 교과목 지필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연구 대상자 정보 문항(성별)을 제외하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영어 성취도에 대한 문항은 10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4.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회복탄력성 요인 4개, 영어 학습 동기 요인 4개, 영어수업 태도 요인 2개에 대하여 묻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설문에 사용된 각 요인은 다음과 같다(예시문항은 부록 참조).

첫째, 회복탄력성의 요인 중 인지된 행복감(5문항, $\alpha = .871$)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력(6문항, $\alpha = .825$)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지나 능력을 뜻한다. 감정조절능력(5문항, $\alpha = .859$)은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하게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낙관성(4문항, $\alpha = .855$)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T. Y. Kim & H. S. Lee, 2014). 둘째, 영어 학습 동기의 요인 중 이상적 제2언어 자아(8문항, $\alpha = .929$)는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 모습으로 제2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미래상을 의미한다. 필연적 제2언어 자아(7문항, $\alpha = .908$)는 제2언어

TABLE 1

Correlations of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chievement	
	1	2	3	4	5	6	7	8	9	10	11
1. PH	1										
2. PS	.529***	1									
3. EmR	.307***	.434***	1								
4. Opt	.437***	.415***	.255***	1							
5. Ideal L2	.292***	.268***	.230***	.178***	1						
6. Oht L2	.086	.106*	-.001	.068	.237***	1					
7. Inst.[pro]	.199***	.227***	.220***	.180***	.479***	.337***	1				
8. Inst.[pre]	-.069	.018	.076	.014	.108*	.455***	.373***	1			
9. Sts	.409***	.364***	.236***	.245***	.399***	.210***	.282***	.103*	1		
10. TO	.185***	.234***	.174***	.091*	.348***	.185***	.287***	.195***	.518***	1	
11. Achv	.300***	.361***	.321***	.224***	.376***	.085	.309***	.198***	.391***	.345***	1

Note. PH = perceived happiness, PS = problem-solving, EmR = emotional-regulation, Ideal L2 = ideal L2 Self, Oht L2 = ought-to L2 self, Inst.[pro] = instrumentality[promotion], Inst.[pre] = instrumentality[prevention], Sts = satisfaction, TO = task orientation, Achv = achievement
* $p < .05$, *** $p < .001$

어 학습을 안 했을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도구성[장려](7문항, $\alpha = .890$)는 학업 및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뜻하며, 도구성[방어](6문항, $\alpha = .882$)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제2언어를 학습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셋째, 영어수업 태도의 요인 중, 수업 만족도(5문항, $\alpha = .911$)는 영어수업에 대한 인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흥미와 수업의 유용성을 의미한다. 수업 활동적응(2문항, $\alpha = .790$)은 영어수업 전후에 보이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업 태도로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미리 준비하거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학습에 적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기술통계 및 정규성 분석(왜도, 첨도)를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 검증과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중 측정변인들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1.169~0.304, 첨도는 -0.749~1.216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표본 측정치가 정상분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수로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이 3이상, 첨도는 절대값이 10이상일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평균값(M)에 대한 결과이다. 회복탄력성은 낙관성(M = 3.93), 감정조절능력(M = 3.65), 인지된 행복감(M = 3.48), 문제해결력(M = 3.37)순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 동기는 도구성[장려](M = 3.69), 도구성[방어](M = 3.34), 이상적 제2언어 자아(M = 3.24), 필연적 제2언어 자아(M = 2.78)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수업 태도는 ‘수업 만족도’(M = 3.38), ‘수업활동 적응’(M = 3.23) 순으로 확인되었다.

제시된 표 1은 본 연구의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 < .05$,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모든 절대값이

.529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들 간의 .90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술하였듯 모든 독립 변인들 간의 절대값이 .529 이하로 나타나 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연구문제1.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는 이들의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앞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제시된 표 2는 국내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2 = .313$ 으로 나타나 31.3%의 설명력이 확인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 = 21.046, p < .001$).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력($\beta = .139, p < .01$), 감정조절능력($\beta = .117, p < .01$),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이상적 제2언어 자아($\beta = .186, p < .001$), 도구성[방어]($\beta = .177, p < .001$),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 만족도($\beta = .140, p < .01$), 수업활동 적응($\beta = .120, p < .05$)이 성취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필연적 제2언어 자아($\beta = -.125, p < .01$)는 성취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2언어 학습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력, 감정조절능력과 학습 동기의 하위요인 중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도구성[방어]가 높을수록 성취도는 높아지고,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낮을수록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 만족도, 수업활동 적응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회복탄력성 요인들 중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문제해결력, 감정조절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학습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힌 선행연구(Y. J. Lee, 2004; J. A. Park & E. K. Lee, 2011)와 유사하다. 그러나, 영어 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던 T. Y. Kim과 H. S. Lee(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회복탄력성 요인 중 문제해결력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이 마주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을 뜻한

TABLE 2
The Effect of Resilience, Motivation and Attitudes on Achiev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Achievement					
	B	SE	β	t	p	
(Constant)	-2.399	.763		-3.146	.002	
Resilience	Perceived happiness	.181	.153	.059	1.180	.239
	Problem-solving	.508	.183	.139	2.777**	.006
	Emotional-regulation	.414	.157	.117	2.646**	.008
	Optimistic	.102	.139	.033	.736	.462
Motivation	Ideal L2 Self	.491	.125	.186	3.929***	.000
	Ought-to L2 self	-.338	.123	-.125	-2.749**	.006
	Instrumentality[promotion]	.107	.157	.033	.681	.496
	Instrumentality[prevention]	.500	.131	.177	3.806***	.000
Attitudes	Satisfaction	.392	.142	.140	2.748**	.006
	Task orientation	.295	.115	.120	2.567*	

$R^2 = .313, Adj R^2 = .299, F\text{-value} = 21.046***, p = .000$

* $p < .05$, ** $p < .01$, *** $p < .001$

다. 감정조절능력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감정과 행동을 조절 및 통제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같은 행동과 감정에 대한 자기 통제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학교나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Reivich & Shatte, 2003). 따라서 국내 고등학생들 중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입시준비 및 성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학업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이 영어 학습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높은 영어 성취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들이나 부모님, 교사 등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압박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나 학업 외의 활동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학습 동기 요인 중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도구성[방어]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연적 제2언어 자아는 영어 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들(Dörnyei & Chan, 2013; T. Y. Kim, 2006; T. Y. Kim & H. S. Lee, 2014; Y. K. Kim & T. Y. Kim, 2012; Y. Lee & K. Ahn, 2013; Papi, 2010; Taguach et al., 2009)과 유사한 결과이다. 먼저, 영어 성취도에 있어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제2언어 자아에 대한 선행연구(T. Y. Kim & H. S. Lee,

2014; Y. Lee & K. Ahn, 20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J. Y. Kang과 T. Y. Kim(2017)의 연구에서도 국내 고등학생들에게 강한 도구적 동기와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발견되었으며, T. Y. Kim, Y. Kim과 J. Y. Kim(2017a)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구성[방어]가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도구적 동기를 강하게 보인다는 선행연구들(S. B. Lim, 2001; E. K. Mang, 2001; E. J. Na, 2003)도 있다. 본 연구와 언급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럴 때(즉, 이상적 제2언어 자아)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발휘되어 더 높은 영어 성취도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를 의식하며 영어 학습을 하는 경우(즉, 필연적 제2언어 자아)에는 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학습 분위기로 인해 수능의 필수과목인 영어 교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영어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도구성[방어]와 같은 도구적 동기가 이들의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국내 고등학생들은 낮은 영어 점수로 겪게 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영어 학습을 하는 것도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영어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을 그럴 때 더 높은 영어 성취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영어수업 태도의 수업 만족도, 수업활동 적응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영어수업에서 느끼는 유용성과 흥미, 그리고 수업이나 자신의 학습을 위해 준비하는 노력과 같은 수업 전후에 나타나는 학습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수업에 대한 만족감 및 인식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Choinh & Fraser, 2009; Fraser, 1998; J. R. Kim, 2014)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 EFL 학습 분야에 국한하여 수업 태도와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M. Y. Kim(2016)의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와 영어 능숙도 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H. W. Lee(1996)와 T. Y. Kim(2006)의 연구는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영어 성취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인 학습 상황과 영어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가 연구를 통해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성취도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고찰 및

종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영어를 활용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하여 이들에게 영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2.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는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사용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와 영어 성취도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 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수정모형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1)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요인에 대한 확인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복탄력성 요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chi^2 = 492.663$, SRMR = 0.068, GFI = 0.906, AGFI = 0.878, NFI = 0.898, CFI = 0.929, RMSEA = 0.066으로 나타나 연구 단위의 적합도 척도가 적절히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 학습 동기 요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chi^2 = 788.511$, SRMR = 0.068, GFI = 0.895, AGFI = 0.870, NFI = 0.910, CFI = 0.945, RMSEA = 0.055으로 나타나 연구 단위의 적합도 척도가 적절히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수업 태도 요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chi^2 = 57.216$, SRMR = 0.026, GFI = 0.962, AGFI = 0.918, NFI = 0.971, CFI = 0.977, RMSEA = 0.085으로 나타나 연구 단위의 적합도 척도가 적절히 구성되었음 역시 확인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요인의 CR(Construct Reliability: 개념 신뢰도)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분산추출지수)를 각각 계산한 결과, 모든 요인의 CR은 기준치인 .70 보다 높고, AVE도 기준치인 .50 보다 높아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대표성을 확인하였다.

2)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간의 구조 모형

본 연구에서 초기에 설정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통해 모든 경로가 유의한 나타났으며 적합도 지수도 대다수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더 나은 모형을 탐색하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

TABLE 3
The Fit Measures for Modified Model

	CMIN	SRMR	GFI	AGFI	NFI	CFI	TLI	RMSEA
Initial	115.145	.051	.955	.919	.914	.939	.910	.067
Final	71.372	.040	.973	.946	.947	.970	.950	.050
Criteria	-	≤ 0.05	≥ 0.9	≥ 0.9	≥ 0.9	≥ 0.9	≥ 0.9	≤ 0.05
Evaluation	-	acceptable						

TABLE 4
Parameter Estimation and Tests for Statistical Significant for the Final Model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S.E	C.R
Resilience → Motivation	.560	.458	.085	6.582***
Resilience → Attitudes	.371	.281	.088	4.200***
Resilience → Achievement	1.127	.243	.275	4.096***
Motivation → Attitudes	.565	.523	.082	6.889***
Motivation → Achievement	.786	.207	.287	2.741**
Attitudes → Achievement	.870	.248	.281	3.096**

** $p < .01$, *** $p < .001$

수(Modification indices)를 사용하여 수정모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 학습 동기와 교실 영어수업 태도의 경로를 추가함으로써 적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그림 2참조). 수정모형의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chi^2 = 71.372$, SRMR = 0.040, GFI = 0.973, AGFI = 0.946, NFI = 0.947, CFI = 0.970, RMSEA = 0.050, TLI = 0.970으로 분석되어 이전보다 향상된 전체적인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χ^2 차이검증을 통해 초기 모형과 수정모형의 χ^2 차이(43.773)가 자유도의 차이(4)에 비해 크게 나타나,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4는 수정모형의 경로계수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은 영어 학습 동기($\beta = .458, p < .001$), 영어수업 태도($\beta = .281, p < .001$), 영어 성취도($\beta = .243, p < .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학습 동기는 영어수업 태도($\beta = .523, p < .001$), 영어 성취도($\beta = .207, p < .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수업 태도는 영어 성취도($\beta = .281, p < .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앞서 언급한 수정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 구조모형이다. 그림 2에 나타난 수정모형을 통해 회복탄력성은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어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Analysis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Resilience → Achievement	.243***	.224***	.467***
Motivation → Achievement	.207**	.130*	.337***
Attitudes → Achievement	.248**	-	.248**

*** $p < .001$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는 영어 성취도에 각각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추가된 경로를 통해 영어 학습 동기는 영어수업 태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 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영어 학습 동기는 영어 수업 태도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요인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간접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43,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를 매개하여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24, 총효과는 .467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07,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를 매개하여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130, 총효과는 .337로 확인되었다. 즉,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를 모두 매개하여 성취도에 미치는 높은 수준의 영향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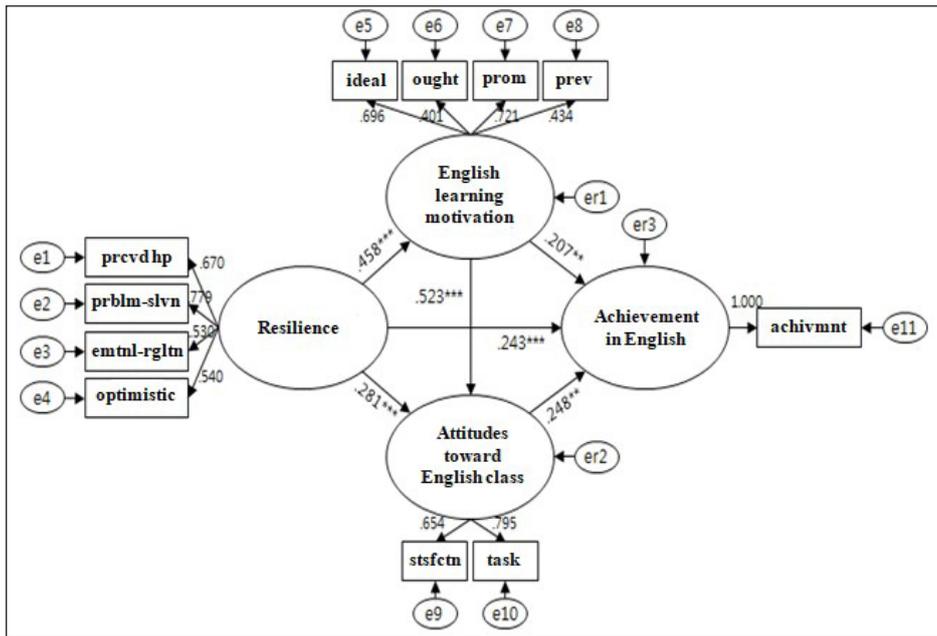


FIGURE 2 The Final Model of Resilience, Motivation, Attitudes, and Achievement

이처럼 수정모형(그림 2)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둘째,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셋째, 영어수업 태도가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즉, 회복탄력성은 동기와 태도,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받는 학습 동기는 성취도뿐만 아니라 영어수업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학습 동기의 영향을 받은 영어수업 태도는 영어 성취도에 정적인 직접 영향을 끼친다. 또한,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와 영어수업 태도를 매개하여 성취도에 미치는 높은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연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정모형으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회복탄력성은 국내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H. S. Jang, 2001; Kwek et al., 2013; Padrón, et al., 2014; Putwain, et al., 2013; Rivera & Waxman, 2011)에서도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잘 대처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수업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태도,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 및 자신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설명

하였다. 또한, T. Y. Kim, Y. Kim과 J. Y. Kim(2017b)은 국내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탈동기(demotivation), 영어 능숙도(proficiency)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회복탄력성이 영어 능숙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탈동기를 매개한 간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탈동기에 미치는 강한 영향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탈동기는 학습자가 외부적인 압박, 즉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것이다. 반대로 학습자가 그 압박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T. Y. Kim & Y. J. Lee, 2013).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여 동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절하고 유연한 반응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발달에 이르는 ‘정신적 저항력’(J. H. Kim, 2011)이라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회복탄력성과 탈동기의 부적관계를 밝힌 연구(J. Shin & T. Y. Kim, 2017) 및 높은 회복탄력성은 긍정적인 학습 동기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제시한 Rouse(2001)의 연구와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회복탄력성은 학습자가 영어 학습을 진행하며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탈동기를 완화시키

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어 학습 동기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 나타난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언급한 선행연구(T. Y. Kim et al., 2017b; Rouse, 2001; J. Shin & T. Y. Kim, 2017)에서 확인하였듯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탈동기 수준이 낮아 그 결과로 학습 동기가 향상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수정모형을 통해 영어 학습 동기가 영어 성취도를 비롯하여 영어 학습 태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어 학습 동기가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2언어 학습 동기와 관련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예: Dörnyei & Chan, 2013; Y. L. Hong & T. Y. Kim, 2013; T. Y. Kim, 2012b; T. Y. Kim & H. S. Lee, 2014; Y. K. Kim & T. Y. Kim, 2012 등)를 지지한다. 또한, 추가된 경로를 바탕으로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학습 동기가 수업 태도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선행연구(Green, Liem, Martin, Colmar, Marsh, & McInerney, 2012; J. R. Kim, 2014)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 동기가 학교 및 수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학습 동기가 수업 참여(engagement)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밝혔다. 또한, 제2언어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Gardner, 1991; H. W. Lee, 2002; Masgoret & Gardner, 2003)에서도 동기와 태도의 유의한 상관관계와 학습 동기가 태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그 예로 Gardner(1991)는 학습 동기와 태도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제시하며, 동기와 태도는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을 꾸준히 하고자 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학습 동기와 수업 태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으며, 특히 영어수업 태도에 영어 학습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업태도가 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Choinh & Fraser, 2009; Fraser, 1998; Gentry et al., 2002; J. R. Kim, 2014; Pardón et al., 2014)임을 고려했을 때, 영어 학습 동기 증진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향상을 돕기 위해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과제나 영어 학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수업활동(Dörnyei, 2003)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V.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각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가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먼저 회복탄력성의 문제해결력, 감정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영어 성취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고등학생들 중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학업에 대한 압박을 겪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이 영어 학습에서 더 뛰어난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영어 학습 동기의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도구성[방어]가 높고, 필연적 제2언어 자아가 낮을수록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학생들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영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영어를 실제 사용하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영어 성취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수업 태도의 하위 요인인 수업 만족도와 수업활동 적응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수업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자신의 영어 학습을 위해 연습 및 복습 등 개인적인 학습 노력이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 고등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1) 회복탄력성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2) 학습 동기가 영어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 (3) 영어수업 태도가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정모형을 바탕으로 학습 동기와 수업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이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정모형을 통해 ‘회복탄력성→영어 학습 동기($\beta = .458$)’, ‘영어 학습 동기→영어수업 태도($\beta = .523$)’, ‘영어수업 태도→영어 성취도($\beta = .248$)’이 확인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은 학습 동기에 큰 영향을, 회복탄력성의 영향을 받은 학습 동기는 수업 태도에 큰 영향을, 학습 동기의 영향을 받은 수업 태도는 성취도에 큰 영향을 끼

치는 것임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즉, 높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감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증진시킨다. 이는 자연스럽게 영어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성취도에 높은 수준으로 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미 영어 학습 동기와 관련한 연구결과(Dörnyei & Chan, 2013; Dörnyei et al., 2006; T. Y. Kim, 2012b; T. Y. Kim & H. S. Lee, 2014; Papi, 2010)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영어 성취도에 중요한 역할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내 영어 학습자들,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결과(D. I. Choi & T. Y. Kim, 2013; J. Y. Kang & T. Y. Kim, 2016; T. Y. Kim & H. S. Lee, 2014)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에게서 필연적 자아가 강하게 작용하고, 이상적 자아의 발현 정도가 낮거나 중학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제2언어 자아의 영향이 적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내 고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동기요인은 필연적 제2언어 자아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적 제2언어 자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어떠한 이유로 선행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은 2018학년도부터 처음 실시된 수능영어의 절대평가의 도입(Minister of Education, 2014)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절대평가는 학생 변별보다 성취수준에 중점을 둔 준거기준평가(criterion-referenced test)로써 상대적인 순위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에게 해당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이다. 이러한 평가방법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무분별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줄여주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라는 대학입시 제도의 변화가 학생들이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가 서로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 중점을 두어 파악하였다. 특히, 영어 학습에서 회복탄력성의 역할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수정모형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이 영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적 특성임이 밝혀졌다. 이는 일반적인 학습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동기, 태도, 성취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과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연구결과(Abolmaali & Mahmudi, 2013; Borman, & Overman, 2004; T. Y. Kim & Y. K. Kim, 2016; Padrón, et al., 2014; Putwain et al., 2013)를 지지한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이 학업 스트레스와 압박을 적절히 대처하여 성공적인 학업과 학교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예로 Duckworth(2016)는 수업 외의 특별활동(운동, 연극, 악기 연주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전 의식과 내재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교사의 모습도 강조된다. 교사는 회복탄력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모델이 되며, 교사가 제공하는 칭찬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인정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Benard, 1993; E. S. Hong, 2006). 이 같은 방법으로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자 역할이 되어주고 다양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특정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국내 고등학생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연구 참여자들 중에 남학생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 성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 지역, 학년, 성비 균형 등의 세부적 요인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학교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인 설문지 중심으로 분석하였기에 참여 학생들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 성별, 부모 및 가정환경, 학습 환경 등과 같은 요소로 인해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 외연의 확대 역시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bolmaali, K., & Mahmudi, R. (2013). The predi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resilience and perception of the classroom environment. *Ope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1(1), 7-12.
- Benard, B. (1993). Fostering resilience in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1, 444-498.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orman, G. D., & Overman, L. T. (2004). Academic resilience in mathematics among poor and minority student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4, 177-195.
- Choi, Duk-In, & Kim, Tae-Young. (2013).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Studies 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9(2), 245-274.
- Choi, Hee Ok, Moon, Jae Woo, & Park, Jae San. (2005). A study on the family conflicts and school maladjustment. *Health and Social Science*, 17, 79-106.
- Choinh, Y. H., & Fraser, B. J. (2009). Classroom environment, achievement, attitudes and self-esteem in geography and mathematics in Singapore.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18(1), 29-44.
- Cicchetti, D. (2013). Annual research review: Resilient functioning in maltreated children—past, present, and future perspectiv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4), 402-422.
- Dörnyei, Z. (2003). Attitudes, orientations, and motivations in language learning: Advances i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Language Learning*, 53(S1), 3-32.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örnyei, Z., & Chan, L. (2013). Motivation and vision: An analysis of future L2 self images, sensory styles, and imagery capacity across two target languages. *Language Learning*, 63(3), 437-462.
- Dörnyei, Z., Csizér, K., & Németh, N. (2006). *Motivation, language attitudes and globalisat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Duckworth, A.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Scribner.
- Fraser, B. J. (1998). Classroom environment instruments: Development, validity and applications.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1(1), 7-34.
- Fraser, M. W., Richman, J. M., & Galinsky, M. J.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 129-208.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 Gardner, R. C. (1991).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In A. G. Reynolds (Eds.), *Bilingualism, multiculturalism,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cGill conference in honour of Wallace E. Lambert* (pp. 43-63). New York: Psychology Press.
- Gardner, R. C. (2001). Integrative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Z. Dörnyei & R. Schmidt (Ed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19).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entry, M., Gable, R. K., & Rizza, M. G. (2002). Students' perceptions of classroom activities: Are there grade-level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3), 539-544.
- Green, J., Liem, G. A. D., Martin, A. J., Colmar, S., Marsh, H. W., & McInerney, D. (2012). Academic motivation, self-concept, engagement, and performance in high school: Key processes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ce*, 35(5), 1111-1122.
- Hong, Eun Suk. (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2), 45-67.
- Hong, Ye-Lee, & Kim, Tae-Young. (2013). A study on English-learning motiv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Focusing on residential area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39(1), 45-67.
- Im, Hui-Jin, & Kim, Hyeong-Chul. (2010). *Korean survey on the academic attitude and environment of high school students in 2009*.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Jang, Hwee Sook. (2001). Resilience as a factor interrupting psychological disor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4(1), 113-127.
- Kamali, Z., & Fahim, M.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ability of Iranian EFL learners and their resilience level facing unfamiliar vocabulary items in reading.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2(1), 104-111.
- Kang, Ji-Young, & Kim, Tae-Young. (2017). Korea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anxiety and motivation. *English Language Teaching*, 29(1), 63-83.
- Kim, Jong-Ryoul.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trinsic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 on gender differ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5(1), 93-113.
- Kim, Joo-Hwan. (2011). *Resilience*. Seoul: Wisdom House.
- Kim, Mi-Young. (2016). A study on learning motivation, class satisfaction, and English proficiency of EFL learners. *Journal of the Humanities*, 76, 81-110.
- Kim, Tae-Young. (2006). Motivation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language learning as socio-politically mediated constructs: The cas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Asia TEFL*, 3(2), 231-256.
- Kim, Tae-Young. (2012a).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of Korean EFL students: Cross-grade survey analysis. *English Teaching*, 67(1), 29-56.
- Kim, Tae-Young. (2012b). An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their L2 selves: A qualitative interview approach. *Kore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1), 67-99.
- Kim, Tae-Young, Kim, Youngmi, & Kim, Ji-Young. (2017a). English learning resilience, motivation, and demotivation of Korean students: A mixed method approach. *Education Study*, 69, 61-94.
- Kim, Tae-Young, Kim, Youngmi, & Kim, Ji-Young. (2017b).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2 learning (de) motivation, resilience, and L2 proficiency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6(6), 397-406.
- Kim, Tae-Young, & Kim Yoon-Kyoung. (2016). The impact of resilience on L2 learner's motivated behaviour and proficiency in L2 learning. *Educational Studies*, 43(1), 1-15.
- Kim, Tae-Young. (2015). *English learning motivation research in South Korea*. Seoul: Hankookmunhwasa.
- Kim, Tae-Young, & Lee, Hye-Sun. (2014). Korea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demotivation, resilience, and English proficiency.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29, 11-41.
- Kim, Tae-Young, & Lee, Yu-Jin. (2013). Korean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demotivation through autobiographic essays: Retrospective reconstruc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9(1), 37-69.
- Kim, Yong-Rai.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 & school-related coping scale (B) and relations between (A) & (B).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7, 3-37.
- Kim, Yoon-Kyung, & Kim, Tae-Young. (2012).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L2 learning motivation: Comparing L2 motivational self-system with socio-educational model.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8(1), 115-132.
- Kormos, J., & Csizér, K. (2008).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motivation of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ttitudes, selves, and motivated learning behavior. *Language Learning*, 58(2), 327-355.
- Kwek, A., Bui, H. T., Rynne, J., & So, K. K. F. (2013). The impa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academic performance: An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hospitality and tourism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Education*, 25(3), 110-122.
- Lee, Chang-Ho, Kim, Jong-Gil, & Lee, Hangwoo. (2008). *Future social change forecasts by comparing structure of consciousness among elementary, middle, high and college students* (Report No. 08-R02).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Lee, Hyo-Woong. (1996).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motivation on learning English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Teaching*, 52(2), 3-34.
- Lee, Hyo-Woong.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motivation, and strategies in learning English. *The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14(1), 189-212.
- Lee, Yeonsil, & Ahn, Kyungja. (2013).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effects of L2 selves, international posture, and family encourage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14(1), 127-152.
- Lee, Yoon-Joo. (2004).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parents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2), 435-449.
- Lim, Hyo Jin, & Kim, Jae Chul. (2014).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ttainment value, self-regulatory strategies, achievement, and academic adjustme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A moder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6), 161-190.
- Lim, Sang-Bong. (2001). A study on the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stimulate and maintain the motiv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English. *Primary English Education*, 7(2), 122-163.
- Mang, Eun-Kyung. (2001). The effects of motivation on language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2(2), 157-170.
- Martin, A. J. (2002). Motivation and academic resilience: Developing a model for student enhancement.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46(1), 34-49.
- Masgoret, A., & Gardner, R. C. (2003). Attitude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ducted by Gardner and associates. *Language Learning*, 53(1), 123-163.
- Ministry of Education. (2014). *Introduction of absolute assessment in the English language area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Retrieved from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W&s=moe&m=02&opType=N&boardSeq=58107>
-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curriculum of English subject* (Report No. 2015-74). Seoul: Ministry of Education.

ucation.

- Na, Eun-Jin. (2003). The correlations of motivation and perceived social distance on English profici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Teaching*, 15(3), 223-251.
- Nguyen, K., Stanley, N., Stanley, L., & Wang, Y. (2015). Resilience in language learners and the relationship to storytelling. *Cogent Education*, 2(1), 1-16.
- Padrón, Y. N., Waxman, H. C., & Lee, Y. (2014). 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 differences between resilient, average, and nonresilient middle school students in reading. *Education and Urban Society*, 46(2), 265-283.
- Papi, M. (2010).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L2 anxiety, and motivated behavi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System*, 38(3), 467-479.
- Park, Jin Ah, & Lee, Eun Kyung.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 Park, Sang-Hee.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resilience, failure tolera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6(2), 59-81.
- Putwain, D. W., Nicholson, L. J., Connors, L., & Woods, K. (2013). Resilient children are less test anxious and perform better in test at the end of primary schooling.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41-46.
- Reivich, K., & Shatte,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Seven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Broadway.
- Rivera, H., & Waxman, H. C. (2011). Resilient and nonresilient Hispanic English language learners' attitudes toward their 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 in mathematics. *Journal of Education for Students Placed at Risk*, 16(3), 185-200.
- Roeser, R. W., & Eccles, J. S. (1998). Adolescents'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Rel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cade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1), 123-158.
- Rouse, K. A. G. (2001). Resilient students' goals and motiv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4(1), 57-69.
- Scales, P. C., Benson, P. L., Roehlkepartain, E. C., Sesma, A., & Dulmen, V. M. (2006). The role of developmental assets in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9(5), 691-708.
- Seoul Education Information Institute. (2016). *SELS The questionnaire of 6thYear*. Retrieved from <http://www.serii.re.kr/board/viw.do?method=boardview&mcodes=S021&seq=25492>
- Shin, Nana, & Doh, Hyun Sim. (2000).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8(3), 99-113.
- Shin, Woo-Yeol, Kim, Min-Gyu, & Kim, Joo-Hwan.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Shin, Jiwon, & Kim, Tae-Young. (2017). South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resilience, motivation, and demotivation. *Linguistic Research*, 34(special edition), 69-96.
- Statistics Korea. (2015). *2015 Statistics of Adolescent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35384
- Taguchi, T., Magid, M., & Papi, M.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mong Japanese, Chinese and Iranian learners of English.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66-97). Bristol, UK: Multilingual Matters.
- Waxman, H. C., Huang, S. L., & Padrón, Y. N. (1997). Motiv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difference between resilient and nonresilient Latino middle school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9, 137-155.
- Wi, Hye Jeong, & Joh, Jeong Soon.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English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y, and English achievement: A stud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0(4), 807-838.

부록

회복탄력성, 학습 동기, 영어수업 태도에 관한 설문문항 예시

1. 회복탄력성 문항 예시

1) 인지된 행복감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만족스럽다.

2) 문제해결력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나에게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있다.

3) 감정조절능력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4) 낙관성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언제나 있다고 생각한다.

2. 영어 학습 동기 문항 예시

1) 이상적 제2언어 자아

나는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한다.

2) 필연적 제2언어 자아

영어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내가 영어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영어공부를 한다

3) 도구성[장려]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

미래에 내가 좋은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되니까 영어공부는 중요하다.

4) 도구성[방어]

영어를 잘 못하면 대학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중요하다.

영어를 잘 못하면 능력 없는 학생처럼 보이므로 영어공부는 중요하다.

3. 교실 영어수업 태도 문항 예시

1) 수업 만족도

나는 영어 수업시간이 재미있고 기다려진다.

학교 영어 수업이 나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2) 수업활동 적응

나는 영어 숙제를 꼬박꼬박 한다.

나는 영어 수업시간을 위해 연습과 복습을 하는 편이다.